

중학교 학생들의 약물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성 윤 진* · 안 숙 자**

한성여자중학교*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on Drug use

Sung, Yun-Jin* · Ahn, Sook-Ja**

*Hansung Middle School**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actual condition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on a Drug.

In this study, 500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response to a questionnaire, which is composed to analyse two categories, i.e. general facts, the actual condition of drug use (the frequency of drug use, the degree of perception on drugs, the people using a drug surrounding, the degree of purchase on drugs).

And the students are classified by satisfactory degree on their home backgrounds, satisfactory degree on their school life, and school record.

The data is analysed by means of frequency, percentage, chi-squar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the SPSS-PC⁺ package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

The frequency of drug use except a alcohol and the degree of perception on a drug among female students are higher than among male. The female students are more permissive on the drug use and they are also tend to think more easily the purchase of a drug.

The frequency of drug use and the degree of perception on drugs are higher in the group of the lower satisfactory degree on their home background. Especially, there are many people using drugs surrounding the students in the lower group.

The frequency of drug use and the degree of perception on drugs are higher in the group that has the lower satisfactory degree on school life.

The students in the group having low school record have more dangerous thought about the use of drugs than the students of high record. The degree of perception on a drug is higher in a higher group, and the students in a higher group also think more easily the purchase of drugs.

The percentage of students using drugs are not high, but the high percentage of students are interested in the drugs and they have permissive attitudes on drugs. Thus, the preventive education for drug abuse must be done rapidly.

I. 서 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의 도피처로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약물에 의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대책 마련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최은영, 1993 ; 청소년대화의광장, 1995 ;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청소년기의 약물사용은 한번 약물을 시작하면 빠르게 중독되고, 약물의 사용경험은 새로운 다른 약물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하며(박중규, 1988 ; 이숙련, 1995), 또한 청소년기 약물남용은 폭력비행, 성비행 등의 원인이 된다. 최근 이러한 청소년 비행은 점차 극악화, 집단화, 지능화, 연소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약물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박금실, 1994).

청소년의 약물남용 원인으로 중요한 요인은 가정생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 학교, 또래집단 환경의 개선은 청소년의 약물남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대중매체를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은 광고나 매스컴의 부적절한 정보를 근거로 특정약물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 오용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독성을 지닌 약물을 일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입용이도 또한 약물남용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약품판매가 일반 상점에까지 개방될 것으로 보여 청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완전노출이 우려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약물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약물 오

·남용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연구들 대부분이 의·약학 분야에서 전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리적 접근이나 사회학 및 정책적 접근이며, 그 외 보건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적 접근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대체로 중독상태에 빠진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문제 예방측면에서의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남용이나 중독으로 그 단계가 발전하기 이전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에는 약물을 남용하는 여성 및 청소년 남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학교 무렵에 약물사용을 시작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김성이 외, 1989 ; 차경수 외, 1993 ; 김혜숙 외, 1994),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사용에 대한 학교 교육차원의 교육이나 약물 예방교육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약물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교육 실시를 위하여 일반 중학교 학생들의 약물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하여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학생 대상의 약물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신길동 D공학, 상도동 S남중, 봉천동 B여중, 신림동 S공학의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1998년 3월 6일에서 3월 20일 까지 실시하였다. 총 5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50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설문지는 일반 중학생들의 약물사용빈도, 약물에 대한 인지도, 주변 약물사용자, 약물구입용이도 등을 조사하고, 약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성적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서 약물은 박종화(1997), 이윤로(1997) 등의 연구에 준하여, 비슷한 약리작용을 하는 것을 하나의 군으로 하고 일정 효과를 얻기 위해 남용하는 약물을 포함하여 일반약물(증상치료제), 위험약물(흡입제, 환각제·대마초)과 청소년 약물남용이 카페인, 술, 담배에서 시작된다는 보고(국제신문, 1994.3.14. ; 이숙련, 1995)를 근거로 술, 담배를 포함하여 다음의 8종류로 구분하였다.

① 감기약(진해제)·진통제 : 증상제거를 위한 약물이지만, 과다복용시 환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약물

② 수면제·진정제·신경안정제 : 수면을 유도하거나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정신과치료에서 사용되지만, 오·남용될 위험이 있는 약물

③ 살해는 약·변비약 : 살을 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오용될 수 있는 약물

④ 각성제·카페인 : 수면방지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특히 많이 오·남용 되는 약물

⑤ 본드·니스·부탄가스 :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환각을 목적으로 쉽게 오·남용 하는 흡입제

⑥ 환각제·대마초 : 강한 환각을 목적으로 하며, 그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약물

⑦ 술

⑧ 담배 : 청소년들이 술과 함께 쉽게 구할 수 있어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은 흡연이 체중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 사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설문조사자료의 통계분석방법은 SPSS-PC⁺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남녀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약물사용실태 및 약물남용과 관련 있는 변인들(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성적)과의 관계는 χ^2 검증을 이용하였다. 또한 각 약물의 사용빈도 및 인지도와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 중학생은 <표 1>에서와 같이, 남학생 207명(41.4%)과 여학생 293명(58.6%)이었으며, 약물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여지는(안대순, 1996) 중학교 2학년(43.8%)과 3학년(56.2%)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동거상황은 대부분(93.2%)이 부모가 동거하는 정상적인 가족이었다. 부모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은 기능직·생산직(29.6%), 자영업(26.4%), 전문기술직·사무직(19.4%) 등이었고, 어머니는 직업이 '있다'가 47.8%, 직업이 '없다'가 52.2%로, 직업의 종류는 판매직·서비스직(15.6%), 자영업(15.4%) 등이었다.

가정생활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가 36.8%, '보통'이 51.6%, '불만족한다'가 11.6%의 비율이었다. 학생들의 일반적인 고민은 학업성적·진로문제·외모 및 건강문제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문제(53.4%)', 가족불화·경제적곤란·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 등을 포함하는 '가족적 문제(24.2%)', 등이었다. 고민내용에 대한 의논상대는 '친구·선후배와 의논(38.4%)', '혼자 해결한다(31.0%)', '부모님과 의논(13.8%)' 등의 순이었다.

학업성적은 '상'이 41.4%, '중'이 42.4%, '하'가 16.2%였으며, 학교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가 15.4%, '보통'이 67.2%,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17.4%의 비율로 나타났다.

한달용돈은 2만원미만(51.4%), 2-5만원미만(36.0%) 등으로 대부분이 5만원미만의 용돈을 사용하였다. 여가활용은 TV시청·라디오청취(45.6%), 친구잡(20.2%), 만화가게·오락실·노래방·비디오방(13.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N(%)

변인	구분	빈도(N)	%	
성별	남	207	41.4	
	녀	293	58.6	
학년	2	219	43.8	
	3	281	56.2	
부모님 상황	동거	466	93.2	
	별거	10	2.0	
	이혼	18	3.6	
	사별	6	1.2	
부모직업	부(父)	전문직·관리직	56	11.2
		전문기술직·사무직	97	19.4
		자영업	132	26.4
		판매직·서비스	27	5.4
		기능직·생산직	148	29.6
		무직	9	1.8
		기타	31	6.2
	모(母)	유무	239	47.8
			261	52.2
	가정생활 만족도	만족	184	36.8
보통		258	51.6	
불만족		58	11.6	
고민내용	가족적 문제요인	121	24.2	
	개인적 문제요인	267	53.4	
	사회적 문제요인	49	9.8	
	고민없다	49	9.8	
	기타	14	2.8	
고민 의논상대	부모님	69	13.8	
	형제·자매	53	10.6	
	친구·선후배	192	38.4	
	선생님	1	0.2	
	혼자 해결한다	155	31.0	
	고민없다	13	2.6	
	기타	17	3.4	
학업성적	상	207	41.4	
	중	212	42.4	
	하	81	16.2	
학교만족도	만족	77	15.4	
	보통	336	67.2	
	불만족	87	17.4	
한달용돈	2만원 미만	257	51.4	
	2-5만원 미만	180	36.0	
	5-10만원 미만	49	9.8	
	10만원 미만	14	2.8	
공부이외의 일	독서	27	5.4	
	운동	48	9.6	
	친구집	101	20.2	
	TV시청, 라디오청취	228	45.6	
	만화가게·오락실·노래방·비디오방	65	13.0	
	기타	31	6.2	

2. 중학생의 약물사용실태

1) 약물사용빈도

조사대상자의 약물사용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성별로 검토하면, 감기약(진해제)·진통제는 '자주사용' 하는 경우(남학생 19.3%, 여학생 28.4%)가 여학생이 더 많았다($p<.001$). 이는 여학생의 생리에 따른 생리통, 두통 등으로 인한 사용의 차이로 보인다. 박중규(1998)에 의하면, 진통제 오·남용은 대체로 자아개념이 낮고 사회관계를 회피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수면제·진정제·신경안정제는 대부분(남 93.7%, 여 90.8%)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9.2%)이 남학생(6.2%)보다 더 많이 사용하여, 정희숙(1991)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살빼는 약·변비약의 경우, '가끔 사용'을 포함하여 '자주사용' 하였다는 응답은 여학생(14.3%)이 남학생(3.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p<.001$). 본 조사에서 변비약은 살을 빼는데 사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는 약물이다. 각성제·카페인인 경우 남녀학생의 과반수(남 48.4%, 여 49.8%)가 '자주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약물이었으며($p<.001$), 진희숙(1994), 정희숙(1991)과 일치하는 본 결과는 이들 약물을 잠을 쫓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과 주왕기 외(199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각성제' 사용이 줄어드는 대신 잠을 쫓는 목적으로 커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드·니스·부탄가스 등의 흡입제를 '자주 사용한다'는 응답은 남녀학생 모두 없었고, '가끔 사용' 경험에서는 여학생(6.5%)이 남학생(1.4%)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았다($p<.01$). 본 결과는 정희숙(1991)의 흡입제 사용에 대한 남학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환각제·대마초의 사용빈도는 조사 약물중 가장 낮았지만, '가끔 사용'한 경험이 여학생은 2.4%, 남학생은 1.4%로 나타났다.

술의 사용빈도는 '자주 마신다'는 남학생 3.4%, 여학생 6.5%이지만, '가끔 마셔본적 있다'는 경우는 남학생 44.9%, 여학생 35.8%로 다른 약물보다는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음주는 술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음료수 대용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어 그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진희숙, 1994). 담배의 경우 여학생들의 사용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01$). 전체 사용경험은 여학생 27.7%, 남학생 16.4% 였으며, '자주사용'한다는 응답은 남학생 4.3%, 여학생 3.8% 였다. 청소년의 술, 담배 사용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술, 담배 사용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체육청소년부, 1990)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성적과 약물사용빈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감기약(진해제)·진통제는 남녀모두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및 성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순영(1996), 진희숙(1994)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수면제·진정제·신경안정제는 가정만족도가 낮은집단에서 남녀 모두 유의차는 없지만, 사용 경험이 많았다. 학교만족도가 낮은집단에서도 사용경험자가 많았다($p<.001$). 성별로는 남학생은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집단에서 사용자가 많았지만($p<.01$), 여학생은 학교만족도가 높은학생도 낮은학생과 비슷하게 본 약물사용 경험자가 많았다($p<.05$). 학교성적과는 남녀모두 유의차는 없지만, 성적이 중·하인 집단에서 사용경험자가 더 많았다. 본 연구는 정희숙(1991)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이에 따르면 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을수록, 성적이 낮은집단에서 약물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빼는 약·변비약의 경우, 여학생들이 다수 사용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가정만족도와는 관련이 없었지만, 학교만족도에서는 높은집단과 낮은집단 모두에서 사용 경험이 많았으며($P<.01$), 성적에서도 중·하위 집단에서 많이 사용하였다($P<.05$). 각성제·카페인인 본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74.0%), 남녀모두 학교만족도가 낮은집단(57.5%), 보통인 집단(50.3%)에서 즉,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본드·니스·가스 등의 흡입제와 환각제·대마초 등의 위험약물은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 좋지않은 또래집단과 어울리게 되어 대체로 사용빈도가 높다는 보고(주왕기, 1996)가 있지만, 본 조사결과는 극히 일부분의 학생이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해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정희숙(1991)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흡입제 사용경험이

〈표 2〉 남녀학생의 약물사용빈도

N(%)

약물의 종류		변인	성별		
			남	녀	합계
감기약(진해제) · 진통제	없다	129(62.3)	105(35.8)	234(46.8)	
	가끔 사용	38(18.4)	105(35.8)	143(28.6)	
	자주 사용	40(19.3)	83(28.4)	123(24.6)	
			$\chi^2 = 35.13^{***}$		
수면제 · 진정제 · 신경안정제	없다	194(93.7)	266(90.8)	460(92.0)	
	가끔 사용	9(4.3)	23(7.8)	32(6.4)	
	자주 사용	4(1.9)	4(1.4)	8(1.6)	
			$\chi^2 = 2.68$		
살빼는 약 · 변비약	없다	200(96.6)	251(85.7)	451(90.2)	
	가끔 사용	4(1.9)	27(9.2)	31(6.2)	
	자주 사용	3(1.4)	15(5.1)	18(3.6)	
			$\chi^2 = 16.52^{***}$		
각성제 · 카페인 (커피, 청량음료 등)	없다	74(35.7)	56(19.1)	130(26.0)	
	가끔 사용	33(15.9)	91(31.1)	124(24.8)	
	자주 사용	100(48.4)	146(49.8)	246(49.2)	
			$\chi^2 = 24.15^{***}$		
본드 · 니스 · 부탄가스	없다	204(98.6)	274(93.5)	478(95.6)	
	가끔 사용	3(1.4)	19(6.5)	22(4.4)	
	자주 사용	-	-	-	
			$\chi^2 = 7.31^{**}$		
환각제 · 대마초	없다	204(98.6)	286(97.6)	490(98.0)	
	가끔 사용	3(1.4)	7(2.4)	10(2.0)	
	자주 사용	-	-	-	
			$\chi^2 = 0.55$		
술	없다	107(51.7)	169(57.7)	176(35.2)	
	가끔 사용	93(44.9)	105(35.8)	198(39.6)	
	자주 사용	7(3.4)	19(6.5)	26(5.2)	
			$\chi^2 = 5.57$		
담배	없다	173(83.6)	212(72.3)	385(77.0)	
	가끔 사용	25(12.1)	70(23.9)	95(19.0)	
	자주 사용	9(4.3)	11(3.8)	20(4.0)	
			$\chi^2 = 11.00^{**}$		
합계		207(41.4)	293(58.6)	500(100.0)	

***P<.001 **P<.01 *P<.05

1991년에는 0.4%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4.4%로 증가하였고, 대마초·환각제의 사용은 1988년 각 0.8%, 0.3%에서 본 조사에서 2.0%로 나타나 중학생의 위험약물 사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음주사용에서 '가끔 사용'과 '자주사용'의 경험자를 보면, 가정만족도가 '하'집단이 62.1%, '중'집단이 46.9%, '상'집단이 36.4%($P<.01$)로 나타나, 김숙경(1992)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정만족도가 낮을수록 음주경험이 더 많았다. 남녀별로는, 여학생은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음주의 경험이 더 많았으며($p<.01$), 남학생은 가정만족도와는 유의차가 없었다. 학교만족도를 보면, 김숙경(1992), 최순영(199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은 사용경험을 나타내었다($p<.05$). 성적과는 유의차가 없었다. 본 조사에서 전체의 44.8%가 음주경험이 있었는데, 음주는 주로 가정내에서 부모·친지와 함께 가볍게 시작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고민있을 때'나 '심심할 때' 상습적으로 음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흡연경험은 가정만족도가 낮을수록($P<.001$),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P<.001$) 높은 흡연율을 보였고, 습관적인 흡연은 가정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13.8%, 학교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11.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적을 보면, 진희숙(199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상위권집단의 흡연경험이 가장 낮았고 하위권에서 9.9%로 높았다($P<.01$). 즉,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성적이 낮을수록 흡연경험과 습관적인 흡연이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위험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은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p<.001$), 여학생은 가정만족도($p<.01$), 성적($p<.05$)이 낮을수록 흡연경험이 많았다.

약물사용 빈도와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성적이 높을수록 대체로 약물의 사용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즉, 가정만족도가 높을수록 감기약(진해제)·진통제의 사용이 낮았고($p<.01$), 술과 담배의 사용도 낮았다($p<.001$). 학교만족도가 높을수록 수면제·진정제·신경안정제($p<.05$), 각성제·카페인($p<.01$)의 사용빈도가 낮았고, 술($p<.05$)과 담배($p<.001$)의 사용빈도도 낮았다. 성적이 높을수록 담배의 사용빈도가 낮았다($p<.05$).

<표 4> 약물사용빈도와 각 변인과의 상관관계

약물	변인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성적
감기약·진통제		-.1174**	-.0824	-.0549
수면제·진정제·신경안정제		-.0814	-.1119*	-.0818
살빼는 약·변비약		-.0134	-.0214	-.0766
각성제·카페인		-.0747	-.1408**	.0260
본드·니스·부탄가스		-.0082	-.0266	-.0483
환각제·대마초		.0326	-.0200	-.0702
술		-.1659***	-.1351*	-.0563
담배		-.1817***	-.1879***	-.1381*

*** $P<.001$ ** $P<.01$ * $P<.05$

2) 약물에 대한 인지도

약물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성별로 보면, 감기약(진해제)·진통제에 대한

인지도는 여학생의 45.7%, 남학생의 37.2%가 '어느 정도 알고있다'라고 응답하였다($P<.05$). '전혀모른다'는 남학생 28.5%, 여학생 21.1%였고, '자세히 안다'는 남학생 7.2%, 여학생 3.8%로 대체로

(표 5) 남녀학생의 약물에 대한 인지도

N(%)

약물의 종류		변인	성별		
			남	녀	합계
감기약(진해제) · 진통제	전혀 모른다	59(28.5)	62(21.1)	121(24.2)	
	들어본적 있다	56(27.1)	86(29.4)	142(28.4)	
	어느정도 알고있다	77(37.2)	134(45.7)	211(42.2)	
	자세히 알고있다	15(7.2)	11(3.8)	26(5.2)	
			$\chi^2 = 7.87^*$		
수면제·진정제 · 신경안정제	전혀 모른다	45(21.7)	67(22.9)	112(22.4)	
	들어본적 있다	93(44.9)	123(42.0)	216(43.2)	
	어느정도 알고있다	66(31.9)	101(34.5)	167(33.4)	
	자세히 알고있다	3(1.4)	2(0.7)	5(1.0)	
			$\chi^2 = 1.27$		
살빼는 약·변비약	전혀 모른다	57(27.5)	55(18.8)	112(22.4)	
	들어본적 있다	103(49.8)	128(43.7)	231(46.2)	
	어느정도 알고있다	40(19.3)	105(35.8)	145(29.0)	
	자세히 알고있다	7(3.4)	5(1.7)	12(0.9)	
			$\chi^2 = 17.95^{***}$		
각성제·카페인 (커피, 청량음료 등)	전혀 모른다	32(15.5)	26(8.9)	58(11.6)	
	들어본적 있다	53(25.6)	86(29.4)	139(27.8)	
	어느정도 알고있다	95(45.9)	151(51.5)	246(49.2)	
	자세히 알고있다	27(13.0)	30(10.2)	57(11.4)	
			$\chi^2 = 6.77$		
본드·니스·부탄가스	전혀 모른다	47(22.7)	35(11.9)	82(16.4)	
	들어본적 있다	76(36.7)	104(35.5)	180(36.0)	
	어느정도 알고있다	64(30.9)	125(42.7)	189(37.8)	
	자세히 알고있다	20(9.7)	29(9.9)	49(9.8)	
			$\chi^2 = 13.05^{**}$		
환각제·대마초	전혀 모른다	81(39.1)	69(23.5)	159(30.0)	
	들어본적 있다	78(37.7)	136(46.4)	214(42.8)	
	어느정도 알고있다	41(19.8)	69(23.5)	110(22.0)	
	자세히 알고있다	7(3.4)	19(6.5)	26(5.2)	
			$\chi^2 = 15.00^{**}$		
술	전혀 모른다	25(12.1)	23(7.8)	48(9.6)	
	들어본적 있다	51(24.6)	78(26.7)	129(25.8)	
	어느정도 알고있다	103(49.8)	158(53.9)	261(52.2)	
	자세히 알고있다	28(13.5)	34(11.6)	62(12.4)	
			$\chi^2 = 3.21$		
담배	전혀 모른다	28(13.5)	22(7.5)	50(10.0)	
	들어본적 있다	56(27.1)	74(25.3)	130(26.0)	
	어느정도 알고있다	93(44.9)	156(53.2)	249(49.8)	
	자세히 알고있다	30(14.5)	41(14.0)	71(14.2)	
			$\chi^2 = 6.25$		
합계		207(41.4)	293(58.6)	500(100.0)	

***P<.001 **P<.01 *P<.05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지만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제·진정제·신경안정제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약 1/3정도가 '어느 정도 알고있다'로 응답하였다. 살빼는 약·변비약의 경우,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이 '들어본 적 있다' 이상의 인지도를 가진 경우가 총 81.2%였으며, 이중 '어느 정도 알고있다'는 경우도 남학생(19.3%)에 비하여, 여학생(35.8%)이 많았다($p < .001$). 각성제·카페인 의 경우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녀학생 과반수 이상(남 58.9%, 여 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왕기(1982)에 따르면, 학생들이 각성제나 카페인을 약물로 인지하지 않고 있으며 본 약물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그 사용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드·니스·가스 등의 흡입제에 대한 인지도는 '들어본 적 있다' 이상의 응답이 남학생 77.3%, 여학생 88.1%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혹은 '자세히 알고 있다'가 남학생 40.6%, 여학생 52.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해 높게 나타났다($P < .01$). 이와 같이 흡입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은 최근 청소년 약물사용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여러 매스컴, 기관, 교육 등에서 자주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각제·대마초의 경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남학생 39.1%, 여학생 23.5%,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학생 19.8%, 여학생 23.5%로 본 약물에 대한 인지도는 남학생이 더 낮았고($P < .01$),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자세히 알고 있다'의 응답도 남학생(23.2%)이 여학생(30.0%)보다 낮았으나,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음주와 흡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자세히 알고 있다'는 남녀 모두 2/3 정도였으며, 전체적으로 술과 담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술, 담배가 청소년들에게 이미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주왕기(198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술, 담배에 대해 약물이란 인식이 부족하며, 특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물에 대한 인지도와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성적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감기약·진통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자

세히 알고 있다'를 포함한 인지도는 가정만족도($P < .01$)와 학교만족도($P < .05$)가 낮은 집단에서 대체로 높았고, 성적($P < .05$)은 '상'과 '중' 집단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수면제·진정제·신경안정제의 인지도는 가정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높았다($P < .05$). 학교만족도와 성적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살빼는 약·변비약에 대한 인지도는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성적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각성제·카페인에 대한 인지도는 성적이 하위권(23.5%)에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p < .01$),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본드·니스·부탄가스 등의 흡입제에 대한 인지도는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성적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환각제·대마초에 대한 인지도는 성적이 하위권인 집단에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4.4%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p < .01$).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음주는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성적이 각각 낮은 집단에서 '자세히 알고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p < .05$). 흡연에 대한 인지도는, '자세히 알고 있다'가 가정만족도가 낮은 집단($p < .05$), 학교만족도가 낮은 집단($p < .01$)에서 높았다. 성적과는 유의차는 없었지만, 하위권에서 '자세히 알고 있다'의 비율(17.3%)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3) 주변 약물사용자

중학생들의 약물사용이나 태도는 부모나 또래 집단 등 주변의 약물사용자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지현, 1997; 이명혜, 1996).

주변 약물사용자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별로 검토하면, 감기약(진해제)·진통제의 사용은 여학생들 주변에는 40.0%(부모 23.9%, 형제나 친지 13.7%)로 남학생 주변(15.5%)보다 더 많았다($p < .001$). 수면제·진정제·신경안정제는 여학생 주변이 12.0%로 남학생 주변의 2.9%보다 많았다($p < .01$). 살빼는 약·변비약은 여학생 주변의 사용자(20.4%)가 남학생 주변의 사용자보다 많았다. 각성제·카페인도 전체적으로 주변사용자가 70.4%로 많았는데, 주로 남녀학생의 부모(46.4%)였다. 남녀별로는, 여학생 주변의 사용자(76.5%)가 더 많았으며, 형제나 친지(13.7%), 친구나 선후배(16.7%)의 사용이 더 높았다($p < .001$).

(표 6) 각 범인의 집단별 안목에 대한 일치도

안목의 종류	개인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심적												합계 N(%)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감각(신체적) · 진통계	20.9	17.2	19.0	35.0	22.8	27.5	31.2	23.8	25.9	24.4	8.3	16.9	31.9	25.4	28.0	19.4	14.3	16.1	26.8	17.1	20.8	26.1	20.0	22.6	37.8	36.4	37.0	121(28.4)	142(28.4)	211(42.2)	26(5.2)																		
	9.9	2.2	6.0	4.0	1.9	2.7	12.5	14.3	13.8	7.3	5.6	6.5	5.9	2.0	3.5	12.9	8.9	10.3	6.4	1.5	3.4	7.6	4.2	5.7	8.2	9.1	8.6	26(5.2)																					
수면계 · 진정계 · 신경안정계	14.3	25.8	20.1	29.0	22.8	25.2	16.8	16.7	17.2	22.0	18.2	23.0	26.4	25.0	16.1	16.1	16.1	25.6	21.7	23.2	19.5	22.5	21.2	18.9	27.3	23.5	112(22.4)	112(22.4)	216(43.2)	167(33.4)	5(1.0)																		
	47.2	40.9	44.0	45.0	43.7	44.2	31.2	38.1	36.2	46.3	50.0	48.1	43.7	40.3	41.7	48.4	42.9	44.8	42.3	38.8	40.1	43.5	45.0	44.3	54.1	43.2	48.1	216(43.2)	167(33.4)	167(33.4)	5(1.0)																		
상쾌는 약 · 변비약	38.5	32.3	35.3	25.0	33.2	30.5	37.5	42.9	41.4	31.7	36.1	33.8	32.6	32.7	29.0	39.2	35.6	30.8	38.8	35.7	35.9	31.7	33.5	24.3	29.5	27.2	167(33.4)	167(33.4)	167(33.4)	5(1.0)																			
	1.0	0.5	1.0	0.4	1.2	2.3	5.2	—	—	—	—	0.7	0.5	0.6	6.5	1.8	3.4	1.3	0.7	1.0	1.1	0.8	0.9	2.7	—	—	—	5(1.0)																					
자상계 · 카페인 (커피, 청량음료등)	18.7	19.4	19.0	36.0	18.4	25.2	25.0	19.0	20.7	17.1	11.1	14.3	29.6	20.9	24.4	32.3	16.1	21.8	28.2	20.9	23.7	23.9	15.0	18.9	35.1	22.7	28.4	112(22.4)	112(22.4)	231(46.2)	145(29.0)	12(0.9)																	
	51.6	39.8	45.7	52.0	46.8	48.8	25.0	40.5	36.2	53.7	50.0	51.9	49.6	44.3	46.4	45.2	37.5	40.2	47.4	42.6	44.4	53.2	44.2	48.1	45.9	45.5	45.7	231(46.2)	231(46.2)	231(46.2)	12(0.9)																		
자상계 · 카페인 (커피, 청량음료등)	27.5	37.6	32.6	9.0	34.2	24.4	37.5	38.1	37.9	26.8	33.3	29.9	18.5	33.8	27.7	12.9	44.6	33.3	23.1	34.9	30.4	19.6	38.3	30.2	10.8	31.8	22.2	145(29.0)	145(29.0)	145(29.0)	12(0.9)																		
	2.2	3.2	2.7	3.0	0.6	1.6	1.2	2.4	5.2	2.4	5.6	3.9	2.3	1.0	1.5	9.6	1.8	4.6	1.3	1.6	1.4	3.3	2.5	2.8	8.2	—	—	12(0.9)																					
본드 · 니스 · 부합가스	13.2	7.5	10.3	17.0	10.1	12.8	18.8	7.1	10.3	9.8	5.6	7.8	18.5	10.4	13.7	9.7	5.4	6.9	12.8	7.0	9.2	9.8	9.2	9.4	35.1	13.6	23.5	58(11.6)	58(11.6)	139(27.8)	246(49.2)	57(11.4)																	
	46.2	54.8	50.5	45.0	52.5	49.6	50.0	40.5	43.1	48.8	55.6	51.9	43.7	51.7	48.5	51.6	48.1	49.4	47.4	49.6	48.8	47.8	55.0	51.9	37.8	47.7	43.2	246(49.2)	246(49.2)	246(49.2)	57(11.4)																		
환가계 · 데미츠	20.9	11.8	16.3	26.0	12.0	17.4	12.5	11.9	12.1	19.5	13.9	16.9	22.2	11.4	15.8	29.0	12.5	18.4	20.5	12.4	15.5	19.5	9.2	13.7	35.1	18.2	25.9	82(16.4)	82(16.4)	189(37.8)	48(9.8)																		
	36.2	40.9	38.6	38.0	35.4	36.4	31.2	23.8	25.9	41.5	44.4	42.9	35.6	34.8	35.1	35.5	32.1	33.3	41.0	31.8	35.3	34.8	35.8	35.4	32.4	45.5	39.5	180(36.0)	180(36.0)	189(37.8)	48(9.8)																		
환가계 · 데미츠	9.9	7.5	8.7	9.0	10.2	9.7	12.5	14.3	13.8	4.9	8.3	6.5	11.1	8.0	9.2	9.7	17.9	14.9	10.3	8.5	9.2	9.8	12.5	11.3	8.2	6.8	7.4	48(9.8)	48(9.8)	189(37.8)	48(9.8)																		
	38.5	25.8	32.1	42.0	22.8	30.2	25.0	21.3	22.4	34.1	27.8	31.2	38.5	22.9	29.2	48.4	23.3	32.2	35.9	20.9	26.6	34.8	22.5	27.8	56.8	34.1	44.4	159(30.0)	159(30.0)	159(30.0)	28(5.2)																		
환가계 · 데미츠	39.6	45.2	42.4	36.0	48.0	43.4	37.5	42.9	41.4	43.9	50.0	46.8	35.6	46.2	42.0	38.7	44.6	42.5	42.4	48.1	45.9	38.0	40.8	39.6	27.0	56.8	43.2	214(42.8)	214(42.8)	214(42.8)	28(5.2)																		
	19.8	22.5	21.2	17.0	22.2	20.2	37.5	31.0	32.8	22.0	13.9	18.2	20.7	25.9	23.8	12.9	21.4	18.4	17.9	22.5	20.8	23.9	30.8	27.8	13.5	6.8	9.9	110(22.0)	110(22.0)	261(52.2)	62(12.4)																		
환가계 · 데미츠	2.1	6.5	4.3	5.0	7.0	6.2	—	4.8	3.4	—	8.3	3.9	5.2	5.0	5.1	—	10.7	6.9	3.8	8.5	6.8	3.3	5.9	4.7	2.7	2.3	2.5	26(5.2)	26(5.2)	26(5.2)	28(5.2)																		
	132	108	120	130	57	85	—	95	69	98	83	91	126	75	95	129	83	103	77	101	92	120	50	80	216	92	148	48(9.8)	48(9.8)	129(25.8)	261(52.2)																		
환가계 · 데미츠	22.0	21.5	21.7	27.0	31.6	29.8	25.0	19.0	20.7	29.3	25.0	27.3	25.1	27.4	26.5	16.1	25.0	21.8	25.7	20.2	22.2	25.0	29.2	27.4	21.6	38.6	30.9	129(25.8)	129(25.8)	261(52.2)	62(12.4)																		
	52.7	59.1	56.0	48.0	51.9	50.5	43.8	50.0	48.3	48.7	61.1	54.5	50.4	55.6	53.6	48.4	42.9	44.8	53.8	59.6	57.5	48.9	53.3	51.4	43.3	38.6	40.7	261(52.2)	261(52.2)	261(52.2)	62(12.4)																		
환가계 · 데미츠	12.1	8.6	10.3	12.0	10.8	11.2	31.2	21.4	24.1	12.2	5.6	9.1	11.9	9.5	10.4	22.6	23.2	23.0	12.8	10.1	11.1	14.1	12.5	13.2	13.5	13.6	13.6	62(12.4)	62(12.4)	62(12.4)	28(5.2)																		
	16.5	10.8	13.6	13.0	5.1	8.1	—	9.5	6.9	9.8	9.8	9.1	14.0	14.0	9.8	16.1	16.1	11.5	11.5	10.1	10.6	12.0	5.0	8.0	21.6	6.9	13.6	50(10.0)	50(10.0)	130(26.0)	249(49.8)																		
환가계 · 데미츠	26.4	21.5	23.9	27.0	29.1	28.3	31.3	19.0	22.4	31.7	31.7	26.0	26.7	26.7	26.5	22.6	22.6	24.1	25.6	18.6	21.3	27.2	27.5	27.4	29.7	38.6	34.6	130(26.0)	130(26.0)	249(49.8)	71(14.2)																		
	45.1	58.0	51.6	47.0	51.9	50.0	31.3	47.6	43.1	49.8	48.8	57.1	46.7	46.7	51.5	32.3	36.8	50.0	56.6	51.4	47.8	54.2	51.4	27.1	40.9	34.6	249(49.8)	249(49.8)	249(49.8)	71(14.2)																			
환가계 · 데미츠	12.0	9.7	10.9	13.0	13.9	13.6	37.4	23.9	27.6	9.7	9.7	7.8	12.6	12.6	12.2	29.0	29.0	27.6	12.9	14.7	14.0	13.0	13.3	13.2	13.6	13.6	17.3	71(14.2)	71(14.2)	71(14.2)	28(5.2)																		
	184	36.8	25.8	51.6	58	11.6	—	58	11.6	77	15.4	33.6	57.2	—	87	17.4	—	87	17.4	20.7	41.4	21.2	42.4	—	81	16.2	500	100.0	500(100.0)	500(100.0)	28(5.2)																		

**p<.001 *p<.05

(표 7) 각 범인의 집단별 주변 악물사용자

악물의 종류	범인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성적			합계
		남	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감기약(진해제) · 진통제	없다	175(84.5)	176(60.0)	136(73.9)	177(68.6)	38(65.5)	59(76.6)	238(70.8)	54(62.1)	150(72.5)	146(68.9)	55(67.9)	351(70.2)
	부모 형제·친지 친구·선호배	20(9.7)	70(23.9)	25(14.2)	56(21.7)	8(13.8)	9(11.7)	61(18.2)	20(23.0)	34(16.4)	42(19.8)	14(17.3)	90(18.0)
수면제·진정제 · 신경안정제	없다	2(1.0)	40(13.7)	1(0.5)	4(1.6)	4(6.9)	1(1.3)	5(1.5)	3(3.4)	4(1.9)	3(1.4)	2(2.5)	50(10.0)
	부모 형제·친지 친구·선호배	201(97.1)	258(88.0)	174(94.5)	239(92.6)	46(79.3)	74(96.1)	305(90.8)	80(92.0)	191(92.3)	194(91.5)	74(91.4)	459(91.8)
산비는 약 · 편미약	없다	183(88.4)	233(79.5)	158(85.9)	216(83.7)	42(72.4)	66(85.7)	284(84.5)	66(75.9)	173(83.6)	178(84.0)	65(80.2)	416(83.2)
	부모 형제·친지 친구·선호배	8(3.9)	18(6.2)	8(4.3)	12(4.7)	6(10.4)	3(3.9)	14(4.2)	9(10.3)	11(5.3)	10(4.7)	5(6.2)	26(5.2)
각성제·카페인 (커피, 청암음료등)	없다	79(38.2)	69(23.5)	53(28.8)	77(29.8)	18(31.0)	23(29.9)	99(29.5)	26(29.5)	61(29.5)	54(25.5)	33(40.7)	148(29.6)
	부모 형제·친지 친구·선호배	97(46.9)	135(46.1)	87(47.3)	123(47.7)	22(37.9)	40(51.9)	149(44.3)	43(49.4)	95(45.9)	105(49.5)	32(39.5)	232(46.4)
본드·니스 · 부탄가스	없다	15(7.2)	40(13.7)	18(9.8)	30(11.6)	7(12.1)	5(6.5)	41(12.2)	9(10.3)	22(10.6)	25(11.8)	8(9.9)	55(11.0)
	부모 형제·친지 친구·선호배	16(7.7)	49(16.7)	26(14.1)	28(10.9)	11(19.0)	9(11.7)	47(14.0)	9(10.3)	29(14.0)	28(13.2)	8(9.9)	65(13.0)
환각제·마약	없다	195(94.2)	279(95.2)	177(96.2)	243(94.2)	54(93.1)	71(92.2)	323(96.1)	80(92.0)	197(95.2)	200(94.3)	77(95.1)	474(94.8)
	부모 형제·친지 친구·선호배	1(0.5)	1(0.3)	1(0.5)	1(0.4)	—	—	1(0.3)	—	—	1(0.5)	—	1(0.2)
술	없다	204(98.5)	289(98.6)	182(98.9)	253(98.1)	58(100.0)	75(97.4)	332(98.8)	86(98.9)	205(99.0)	208(98.1)	80(98.8)	493(98.6)
	부모 형제·친지 친구·선호배	1(0.5)	2(0.7)	1(0.5)	2(0.8)	—	1(1.3)	2(0.6)	—	—	2(0.9)	1(1.2)	3(0.6)
담배	없다	69(33.3)	72(24.6)	61(33.2)	70(27.1)	10(17.2)	20(26.0)	97(28.9)	24(27.6)	51(24.6)	65(30.7)	25(30.9)	141(28.2)
	부모 형제·친지 친구·선호배	107(51.7)	179(61.1)	104(56.5)	150(58.2)	32(55.2)	45(58.4)	197(58.6)	44(50.6)	125(60.4)	116(54.7)	45(55.6)	286(57.2)
합계	없다	84(40.6)	88(30.0)	72(39.1)	88(34.1)	12(20.7)	29(37.7)	116(34.5)	27(31.0)	59(28.5)	85(40.1)	28(34.6)	172(34.4)
	부모 형제·친지 친구·선호배	76(36.7)	152(51.9)	85(46.2)	114(44.2)	29(50.0)	36(46.8)	156(46.4)	36(41.4)	104(50.2)	87(41.0)	37(45.7)	228(45.6)
		9(4.3)	20(6.8)	8(4.3)	16(6.2)	5(8.6)	4(5.2)	18(5.4)	7(8.0)	18(7.7)	9(4.2)	4(4.9)	29(5.8)
		38(18.4)	33(11.3)	19(10.3)	40(15.5)	12(20.7)	8(10.4)	46(13.7)	17(19.5)	28(13.5)	31(14.6)	12(14.8)	71(14.2)
		207(41.4)	293(58.6)	184(36.8)	258(51.6)	58(11.6)	77(15.4)	336(67.2)	87(17.4)	207(41.4)	212(42.4)	81(16.2)	500(100.0)

***P<.001 **P<.01 *P<.05

위험약물 중 본드·니스·가스 등의 흡입제는 사용하는 주변인이 5.0% 내외였으며, 주로 친구나 선후배가 사용하고 있었다. 환각제·대마초는 사용하는 주변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주변사용자들이 많았으며(71.8%),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담배는 남학생 주변은 59.4%, 여학생 주변은 70.0%였으며, 부모의 사용에 따르는 친구·선후배의 사용도 남학생 18.4%, 여학생 1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약물사용 주변인에 대해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및 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감기약(진해제)·진통제를 많이 사용하는 주변인은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은 집단(34.5%), 보통인 집단(31.4%), 높은 집단(26.1%)의 순이었다.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형제·친지' 및 '친구·선후배'의 사용이 많았다($p < .01$). 학교만족도에는 유의차는 없었지만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주변인들의 본 약물사용이 많았으며, 성적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수면제·진정제·신경안정제는 가정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주변사용자들의 약물사용이 많았고($p < .01$), 그중 부모나 친구·선후배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p < .01$). 학교만족도나 성적은 본 약물을 사용하는 주변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빼는 약·변비약은 유의차는 없었지만, 대체로 가정만족도와 학교만족도 및 성적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나 친구·선후배의 사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성제·카페인인 경우는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성적의 집단과는 무관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부모, 그 다음이 친구·선후배였다.

본드·니스·부탄가스 등의 흡입제는 가정만족도가 낮을수록 사용하는 주변인이 많았으며, 주변인은 모두 친구나 선후배였다($p < .01$). 학교만족도, 성적의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환각제·대마초의 주변사용자는 0.4% 정도였으며, 각 변인별 집단간 유의차는 없었다.

주변음주자는 가정만족도가 낮을수록 많았다. 학교만족도에서도 유의차는 없었지만, '하'집단에서 주변음주자로 친구·선후배가 많았다. 담배는 유의한 차는 없었지만, 가정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많이 사용했고, 부모나 친구·선후배의 사용이 많았다($p < .05$).

4) 약물 구입용이도

약물구입용이도에 대한 내용은 <표 8>과 같이, 감기약(진해제)·진통제는 대체로(남학생 92.8%, 여학생 96.6%) 구입이 '쉽다'고 생각하였다. 수면제·진정제·신경안정제의 구입이 '쉽다'는 응답은 과반수 이상(62.2%)이 쉽다고 응답하였다. 살빼는 약·변비약은 남녀모두 구입이 '쉽다'(75.4%)고 하였으며,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p < .001$). 각성제·카페인도 남녀학생 모두 구입이 '쉽다'(87.6%)고 생각하였다.

본드·니스·가스 등의 흡입제는 대체로 구입이 '보통(35.0%)'이거나 '쉽다(30.4%)'고 응답하였다. 이와같이 흡입제는 일상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약물로써 사용할 위험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환각제·대마초는 남녀학생 대부분(90.2%)이 구입이 '어렵다'고 했지만, '보통'이거나 '쉽다'고 응답한 학생도 9.8%였다. 「시사매거진 2580('98.3.29)」에 따르면, 환각제를 's알'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약국이나 약물판매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술의 구입은 '쉽다(35.6%)'와 '보통이다(32.2%)'가 높았고, 여학생(73.4%)이 남학생(60.0%)보다 더 높은 비율이었다($p < .01$). 음주는 뇌 기능을 둔화시키는 중독성 있는 습관성 약물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그 피해가 심각하며, 청소년 비행의 주요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정희숙, 1991). 담배구입은 '보통'이거나 '쉽다'가 과반수 이상(64.4%)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쉽다'고 인식하였다($p < .05$).

각 약물의 구입용이도를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성적에 따라 검토한 결과, 감기약(진해제)·진통제는 성적이 상위권(96.1%)에서 구입이 '쉽다'가 가장 많았고($p < .05$), 살빼는 약·변비약은 성적이 상·중위권집단에서 '쉽다'와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았다($p < .01$). 각성제·카페인도 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쉽다'가 많았다($p < .001$). 따라서 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시험기간에 졸음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각성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약물은 흡입제의 구입이 '어렵다'는 인식은 34.6%에 불과하여 위험약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사용가능성이 염려된다. 성적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지만, 대체로 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구입이 '쉽다'라고 인식하였다. 환각제·대마초는, 구입이 어

(표 8) 각 변인의 집단별 약물구입용이도

약물의 종류	성별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합계
	남	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감기약(진해제) · 진통제	192(92.8)	283(96.6)	173(94.1)	246(95.3)	56(96.6)	72(93.5)	317(94.3)	86(98.9)	199(96.1)	202(95.3)	74(91.4)	475(95.0)	
	11(5.3)	10(3.4)	10(5.4)	10(3.9)	1(1.7)	3(3.9)	17(5.1)	1(1.1)	7(3.4)	10(4.7)	4(4.9)	21(4.2)	
	4(1.9)	-	1(0.5)	2(0.8)	1(1.7)	2(2.6)	2(2.6)	-	1(0.5)	-	3(3.7)	4(0.8)	
	$\chi^2=6.89^*$		$\chi^2=2.39$					$\chi^2=6.69$					
수면제 · 진정제 · 신경안정제	126(60.9)	185(63.1)	118(64.1)	157(60.9)	36(62.1)	52(67.5)	205(61.0)	54(62.1)	137(66.2)	133(62.7)	41(50.6)	311(62.2)	
	64(30.9)	91(31.1)	57(31.0)	82(31.8)	16(27.4)	18(23.4)	108(32.1)	29(33.3)	59(28.5)	65(30.7)	31(38.3)	155(31.0)	
	17(8.2)	17(5.8)	9(4.9)	19(7.4)	6(10.3)	7(9.1)	23(6.8)	4(4.6)	11(5.3)	14(6.6)	9(11.1)	34(6.8)	
	$\chi^2=1.14$		$\chi^2=2.63$					$\chi^2=3.38$					
산책는약 · 편비약	146(70.5)	231(78.8)	143(77.7)	190(73.6)	44(75.9)	59(76.6)	245(72.9)	73(83.9)	156(75.4)	171(80.7)	50(61.7)	377(75.4)	
	46(22.2)	61(20.8)	34(18.5)	62(24.0)	11(19.0)	13(16.9)	80(23.8)	14(16.1)	46(22.2)	36(17.0)	25(30.9)	107(21.4)	
	15(7.3)	1(0.4)	7(3.8)	6(2.3)	3(5.2)	5(6.5)	11(3.3)	-	5(2.4)	5(2.4)	6(7.4)	16(3.2)	
	$\chi^2=19.30^{***}$		$\chi^2=3.50$					$\chi^2=9.31$					
각성제 · 카페인 (커피, 청암음료 등)	181(87.5)	257(87.7)	161(87.5)	223(86.4)	54(93.1)	69(89.6)	287(85.4)	82(94.3)	188(90.8)	190(89.6)	60(74.1)	438(87.6)	
	16(7.7)	32(10.9)	20(10.9)	26(10.1)	2(3.4)	6(7.8)	38(11.3)	4(4.6)	16(7.7)	18(8.5)	14(17.3)	48(9.6)	
	10(4.8)	4(1.4)	3(1.6)	9(3.5)	2(3.4)	2(2.6)	11(3.3)	1(1.1)	3(1.5)	4(1.9)	7(8.6)	14(2.8)	
	$\chi^2=6.49^*$		$\chi^2=4.32$					$\chi^2=5.34$					
본드 · 니스 · 부탄가스	68(32.9)	84(28.7)	56(30.4)	73(28.3)	23(39.7)	29(37.7)	96(28.6)	27(31.0)	77(37.2)	58(27.4)	17(21.0)	152(30.4)	
	61(29.4)	114(38.9)	69(37.5)	87(33.7)	19(32.8)	22(28.6)	127(37.8)	26(29.9)	74(35.7)	72(34.0)	29(35.8)	175(35.0)	
	78(37.7)	95(32.4)	59(32.1)	98(38.0)	16(27.6)	25(33.8)	113(33.6)	34(39.1)	56(27.1)	82(38.7)	35(43.2)	173(34.6)	
	$\chi^2=4.75$		$\chi^2=4.56$					$\chi^2=4.64$					
환각제 · 대이초	2(1.0)	9(3.1)	4(2.2)	5(1.9)	2(3.4)	2(2.6)	8(2.4)	1(1.1)	5(2.4)	4(1.9)	2(2.5)	11(2.2)	
	11(5.3)	27(9.2)	16(8.7)	18(7.0)	4(6.9)	6(7.8)	22(6.5)	10(11.5)	17(8.2)	14(6.6)	7(8.6)	38(7.6)	
	194(93.7)	257(87.7)	164(89.1)	235(91.1)	52(89.7)	69(89.6)	306(91.1)	76(87.4)	185(89.4)	194(91.5)	72(88.9)	451(90.2)	
	$\chi^2=5.36$		$\chi^2=1.00$					$\chi^2=2.88$					
술	62(30.0)	116(39.6)	71(38.6)	83(32.2)	24(41.4)	34(44.2)	110(32.7)	34(39.1)	90(43.5)	70(33.0)	18(22.2)	178(35.6)	
	62(30.0)	99(33.8)	44(23.9)	100(38.8)	17(29.3)	21(27.3)	109(32.4)	31(35.6)	66(31.9)	70(33.0)	25(30.9)	161(32.2)	
	83(40.0)	78(26.6)	69(37.5)	75(29.0)	17(29.3)	22(28.6)	117(34.8)	22(25.3)	51(24.6)	72(34.0)	38(46.9)	161(32.2)	
	$\chi^2=10.56^{**}$		$\chi^2=11.92^*$					$\chi^2=5.88$					
담배	53(25.6)	108(36.9)	64(34.8)	72(27.9)	25(43.1)	29(37.7)	100(29.8)	32(36.8)	80(38.6)	62(29.2)	19(23.5)	161(32.2)	
	68(32.9)	93(31.7)	49(26.6)	97(37.6)	15(25.9)	25(32.5)	106(31.5)	30(34.5)	69(33.3)	71(33.5)	21(25.9)	161(32.2)	
	86(41.5)	92(31.4)	71(38.6)	89(34.5)	18(31.0)	23(29.9)	130(38.7)	25(28.7)	58(28.1)	79(37.3)	41(50.6)	178(35.6)	
	$\chi^2=8.33^*$		$\chi^2=9.72^*$					$\chi^2=4.85$					
합계	207(41.4)	293(58.6)	184(36.8)	258(51.6)	58(11.6)	77(15.4)	336(67.2)	87(17.4)	207(41.4)	212(42.4)	81(16.2)	500(100.0)	

***P<.001 **P<.01 *P<.05

려운 위험약물이기 때문에 구입이 '쉽다'와 '보통이다'가 9.8%로 전체 약물 중 가장 낮았다.

술은 가정만족도가 낮은 집단(41.4%)에서 구입이 '쉽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p < .05$), 성적이 상위권에서 구입이 '쉽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다($p < .01$). 담배도 술과 마찬가지로 가정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43.1%($p < .05$), 성적이 상위권에서 38.6% ($p < .01$)로 구입이 '쉽다'가 많았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남녀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약물사용빈도, 약물 인지도, 주변사용자, 구입용이도를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약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가정생활만족도·학교생활만족도·성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207명(41.4%), 여학생 293명(58.6%)이었고, 부모님의 동거 상황은 대부분(93.2%)이 '동거' 가족이었고, 가정만족도(51.6%)와 학교만족도(67.2%)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적인 고민은 '개인적 문제(53.4%)'가 가장 많았으며, 의논상대는 '친구·선후배와 의논(38.4%)'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약물 사용 빈도는 각성제·카페인(74.0%), 술(44.8%), 감기약·진통제(53.2%), 담배(23.0%), 살빼는 약·변비약(9.8%), 수면제·진정제·신경안정제(8.0%), 흡입제(4.4%), 환각제·대마초(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술을 제외한 모든 약물의 사용빈도는 여학생이 높았으며,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 성적이 낮은 집단에서 약물사용이 많았다.

3. 약물에 대한 인지도는 술(90.4%), 담배(90.0%), 각성제·카페인(88.4%), 흡입제(83.6%), 수면제류와 살빼는 약·변비약(77.6%), 감기약·진통제(75.8%), 환각제·대마초(70.0%)의 순이었다. 술, 담배를 제외한 모든 약물에 대한 인지도는 여학생이 더 높았으며, 가정만족도와 학교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약물에 대한 인지도가 대체로 높았고, 성적이 높은 집단에서는 술, 담배를 제외한 모든 약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4. 주변 약물사용자는 각성제·카페인(70.4%)이나 술(71.8%), 담배(65.6%)를 사용하는 주변인이

많았고, 환각제·대마초(1.4%)를 사용하는 주변인이 가장 적었다. 약물사용자는 대체로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살빼는약·변비약의 '친구·선후배'의 사용이 많았다($P < .05$). 가정만족도,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 주변의 약물사용자가 많았다.

5. 약물 구입용이도는 감기약·진통제(95.0%), 각성제·카페인(87.6%), 살빼는 약·변비약(75.4%), 수면제류(62.2%), 술(35.6%), 담배(32.2%), 흡입제(30.4%), 환각제·대마초(2.2%)의 순으로 '쉽다'고 생각하였다. 대체로 여학생이 약물구입을 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 술, 담배의 구입이 '쉽다'고 하였고, 성적이 상위권에서 약물구입이 '쉽다'는 응답이 많았다.

본 조사는 약물 중독자가 아닌 일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험약물에 대한 사용율은 높지 않았지만, 많은 종류의 약물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물에 대한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물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가정생활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 성적이 낮은 집단이 약물을 더 많이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메스컴에서 다루는 약물 관련 프로그램에는 약물에 대한 문제제기나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약물구입이나 사용·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관점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물교육에서는 약물관련 지식 등의 내용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생물 등 약물과 관련된 교과에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및 요구 등의 조사와 더불어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복자 (1997). 알콜 및 약물중독의 이해와 이론,

- 사랑의 전화 특강자료.
- 고태용 (1997). 청소년 약물남용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불안변인과의 관계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권지현 (1997).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약물사용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길은미 (1993). 일부 남자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조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 4.
- 김성이 외 (1989).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과정에 관한 연구, 체육부.
- 김숙경 (1992).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비행실태 - 충청남도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 석사논문. 4-5, 8-10.
- 김재희 (1995). 약물남용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 3-4, 6, 10.
- 남정자 (1991).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그 사회·심리적 관련요인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41, 50-55, 68.
- 문교정 (1992). 남자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 64-65.
- 박금실 (1994). 약물관련 비행청소년의 특성과 치료적 처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
- 박영숙 (1991).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지식정도와 교육요구도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 8-9.
- 박종화 (1997). 중앙대학교 약제학 실습, 중앙대학교 약학과.
- 박종규 (1988). 약물사용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1, 16-17.
-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1997). Youth Drug Abuse Counseling-일반정신건강에 관한 세미나-.
- 소귀례 (1990). 청소년의 약물남용 원인탐색,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36-41.
- 손해인 (1996). 약물남용청소년의 재발예방을 위한 집단활동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61-63.
- 안대순 (1997).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비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8-17, 18-28.
- 이명례 (1996).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약물사용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1-2, 44-48.
- 이명주 (1992). 한국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논문. 10, 17-21, 27-35.
- 이숙련 (1995). 부산시내 중·고등학생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13-14, 30.
- 이숙영 (1997). 청소년 약물남용의 개인상당과 집단상당, 사랑의 전화 특강자료.
- 이영준 (1996).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이윤구 (1992).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연구원. 213-225, 294-310.
- 이윤로 (1997).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치료, 문음사. 14, 31-32.
- 이형자 (1991).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여고생의 비행울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논문. 64-68.
- 정두병 (1993).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대구새마을연수원. 283-315.
- 정희숙 (1991).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실태에 대한 문헌적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33-36.
- 주왕기, 최충옥, 조영제 역(1994). 미국의 약물예방교육 -미국교육성의 약물예방 교육과정 중심-, 한국청소년학회.
- 주왕기의 (1996). 청소년 약물상당, 청소년대화의 광장. 285.
- 진희숙 (1994). 청소년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의 실태와 요인-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29.
- 차경수 외 (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연구, 문화체육부.
-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 약물남용청소년 상담프로그램 II 교육교재.
- 최선화 (1991).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 사회적 사업적 개입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 최순영 (1996). 고등학교 여학생의 약물남용실태와

- 약물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49-52.
- 최은영 (1993).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교육 현황 조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13, 49-51.
- 최은정 (1996). 청소년 약물중독 환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신문화연구소·조선일보사 (1997). 한국사회의 청소년문화 : 그 실태와 대책.
- 한국청소년학회 (1997). 약물남용 청소년 예방활동 연구집.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
- Brown (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Home Economics Edu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Brown & Bernchmark (1996). *Drugs & Life*, Harry Avis.
- Brown, M.M and Paulucci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Capuzzi, Gross (1996). *Youth at Risk-A Prevention Resource for Counselors, Teachers, and Parents-*,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Dave Macdonald, Vicky Patterson (1991). *A Handbook of Drug Training-Learning about Drugs and Working with Drug Users-*, Routledge.
- J.H.Willis (1974). *Drug Dependence*, Faber and Faber.
- Oakley Ray, Charles Ksir (1996). *Drug, Society, and Human Behavior*, Mosby.
- Robert H.Coombs, Douglas Ziedonis (1995). *Handbook on Drug Abuse Prevention-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event the Abuse of Alcohol and Other Drugs-*, Allyn & Bacon.
- Rudd, J.B. (1977). *Handbook on Home and Family Living through Adult Education*, IL. Danville The Interstate Printers & Publishers, Inc.
- Ruth E. Bragg, Ph.D. (1993). *Changes & Choices-Personal Development & Relationships-*, The Goodheart-Willcox Company, Inc.